



## '불황에 서민들 골병'

## 빈부격차 사상 최대

작년 도시가구 지니계수 0.325로 상승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부문에서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한계계층은 실업한파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올해 더 크게 벌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통계 생성 이전의 흐름으로 미뤄볼 때 사상 최고치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1999년 0.303으로 처음으로 0.3을 넘어선 이후 2000년 0.

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 2004년 0.301,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자산의 분배 정도도 파악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0.325까지 치솟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만평

- 김종우



그래봐야 서민은 달라질게 없다



### "경쟁강요 교육정책 폐기하라"

갖고 "이명박 정부는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등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 승용차 이용률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 광주·전남 녹색교통 활성화 시급

### 자전거·지하철 등 친환경 교통 이용 높여야

광주시가 지난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용차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지나치게 높아 자전거나 지하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대책 수립이 절실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2일 발표한 '2008년도 국가교통비용 및 전국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은 하루 발생기준 6만5천239대(도착기준 6만6천49대)로 전국 대비 1.98%(도착기준 2%)에 불과, 산업활동량도 그만큼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발생기준 17만9천950대

(도착기준 18만3천466대)로 전국 대비 5.45%(도착기준 5.56%)였다. 수단별 여객통행량 조사에서 광주는 하루 108만3천568명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이 중 67만7천965명이 승용차를 이용, 분담률이 62.6%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48.1%를 크게 앞섰으며, 버스는 36만9천655명, 34.1%로 전국 평균 26.8%보다 높았다.

이는 광주 지역 내 여객통행량의 96.7%를 승용차와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 등 철도의 경우 수송 분담률은 3.1%(3만4천22명)에 불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아람회' 사건 28년 만에 무죄 선고

### 법원 재심 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54, 고(故) 이재원씨 재상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보안분실에 가둬놓고 일주

일 이상 잠재우지 않기, 물고문, 집단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받아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바로 잡습니다

본보 21일자 1면 조선대 신임 이사장 선임 관련 "정이사 체제 가교역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박원기 KBS 광주방송총국장'을 '박원기 전 KBS 광주방송총국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 벌써 해수욕장 개장

### 전남지역 무더위에 빨라져

#### 신안 우전 오늘 오픈

이달 초부터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신안 우전해변이 오는 22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중 문을 연다.

전남도는 21일, 이상 기온으로 초여름을 병행하게 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2일 신안 우전해변을 시작으로 29일 완도 명사십리 해변, 30일 무안 흘통해변이 개장하는 등 전남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이달과 다음 달 중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개장하는 신안 우전해변은 개장 당일 관광객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축제를 시작으로 요트 및 선박 해상퍼레이드, 흥겨운 농악놀이 및 국악마

당, 오색 풍선날리기, 해변걷기 등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6월 5~6일엔 신안 송어축제, 7월 31일~8월 14일엔 씨카야, 바다페스티벌 등 해양페스티벌 무료체험교실, 8월 초에는 갯벌페스티벌 대회 등 섬·갯벌축제도 개최된다.

이밖에 대부분의 남도해변에서는 올해 관광객들을 위해 전국해변축구 대회, 비치발리볼대회, 야간영화상영, 가요제, 해양페스티벌 무료체험교실,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 해변에 원두막, 그늘막, 오토캠핑장, 꽃밭 등을 조성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해변 이용객 580여 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숙박 용 텐트 875동을 설치해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

#### KTX 서울~여수구간

#### 2시간 49분으로 단축

서울~여수 KTX의 일부 구간이 고속철도화를 모색함으로써 애초 3시간 19분대로 예상됐던 소요시간이 2시간 49분대로 30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오

송~남공주 구간에 대한 조기 고속철도화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 구간이 계룡산과 금강 등으로 난공사 구간임을 고려해 더라도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 구간이 조기 완공되면 KTX의 서울~여수 소요시간이 애초 3시간 19분대로 2시간 49분대로 대폭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국인의 고향'은 전남

### 특허청, 전남도에 브랜드 독점 사용권

전남도가 '한국인의 고향'이라 는 브랜드를 독점 사용하게 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당신을 보내세요'라는 슬로건이 상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인의 고향'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적, 소책자, 엽서, 인쇄된 서식용지 등에 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남만의

별화된 홍보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는 연간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명창한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지난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상표 출원을 했었다"며 "이번 특허청 상표 등록을 계기로 남도의 맛과 면, 그리고 따뜻한 점을 느낄 수 있는 정감있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남도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

## 침구학 아카데미

2009년 5월 22일(금) 10:00~17:00

한국대학원대학교 침구학부

한국대학원대학교 침구학부